



보도자료 제 12/71 호
즉시보도용
2012년 3월 7일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ashington, D.C. 20431 USA

주민(朱民) IMF 부총재, IMF-사모아 컨퍼런스에 태평양 제도 문제에 대해 강연

국제통화기금(IMF)의 주민 부총재는 사모아 정부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고위 컨퍼런스에서 태평양 제도에서 “동반 성장을 촉진하고 탄력성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 강연을 하기 위해 2012년 3월 23일에 사모아 아피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 컨퍼런스에는 10개 태평양 제도 국가의 주요 정책입안자 및 지역 개발 파트너, 국제기구, 학계, 민간부문의 대표들이 참석한다.

“저는 IMF 부총재로서 처음으로 태평양 제도 지역을 방문하게 되어 기대가 매우 큽니다. 태평양 제도 국가들은 다양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규모, 외부 충격에 대한 취약성, 경제 다각화 및 정책 유연성을 달성할 필요로부터 발생하는 공통의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는 지식과 지역 간 경험을 공유하고, 현재와 같은 글로벌 환경에서 태평양 제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 할 좋은 기회입니다”라고 주민 부총재는 언급했다.

이 컨퍼런스에서는 태평양 제도가 외부 충격에 대한 탄력성을 증가시키고 이 지역의 성장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며, 특히 국가별 개발과 지역 개발에 대한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조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imf.org/external/np/seminars/eng/2012/PIC/index.htm> 을 참조하십시오.